

광주 산업지형 車·에너지로 빠르게 재편

민선 6기 들어 114개 기업 9741억 투자협약

차·에너지 분야 투자액 60% 차지 ... 일자리 창출 선도

광주의 산업지형이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자동차·에너지·문화콘텐츠 등 3대 밸리 육성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현재까지 광주시와 투자협약을 한 기업은 모두 114개로 투자협약 액수는 974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은 5821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투자율은 53.5%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분야 25개사(2519억원) ▲에너지 분야 41개사(3340억원) ▲가전 10개사(1150억원) ▲광산업 5개사(175억원) ▲의료산업 분야 6개사(26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 비중이 업체 수 기준 57.9%, 투자협약 규모로는 60.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LS산전, 대호전기, 로딩테크 등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투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광주가 에너지

산업의 중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활용한 특장차 분야에 한국상용트럭(주), (주)대덕아이엠티가 투자를 결정하고 현대자동차 그룹 데이터센터, 이탈리아 세계적 상용차 브랜드 이베코(IVECO) 한국법인 및 공장 등 설립에 예정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전분야에서도 지난해 대우그룹의 대우위니아가 주방가전 분야의 신규 제품 생산과 물류·콜센터의 거점으로 광주를 선택했으며, 최근 대우그룹 계열사인 (주)대우공업도 진곡산업단지에 급형공장을 신설하는 등 지역 가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는 광주시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가전산업, 광산업 등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이라 지역발전을 이끌 에너지산업과 의료산업 등 신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장 최우선 가치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청년층 인력수요가 많은 에너지, ICT 등 기술선도형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에 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다”며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산강 환경정화선 건조

전남도 국비 30억 확보

전남도가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출기차계 최첨단 환경정화선 건조를 정부에 건의한 결과 2016년 정부 추경예산에서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81년 영산강 하구둑 축조 이후 수십 년간 폐어망과 생활폐기물, 폐목재 등 엄청난 양의 각종 폐기물이 강 바닥에 퇴적돼 수심 감소와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전남도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환경정화선을 투입해 지금까지 수중 및 부유쓰레기 약 1만t을 수거했다.

전남도는 도비 30억원 등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환경정화선 80t급 1척, 부대시설로 바지선 80t급 1척, 접안시설 등을 갖출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조상땀 찾기 서비스

축구장 36개 면적 찾아줘

광주시의 ‘조상 땀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조상 땀 찾기 서비스를 지난 8월까지 97명에게 25만9000여㎡를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36개 크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늘어난 것이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 전상방을 활용해 조화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의 자동차 생산도시 기타큐슈를 방문한 윤장현 광주시장이 낫산자동차에서 낫산자동차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윤장현 시장 日 기타큐슈 방문 친환경차 해법찾기

추석연휴 기타하시 켄지 시장 등 만나 협력방안 논의

윤장현 광주시장이 탄광촌에서 연간 150만대 완성차 생산도시로 탈바꿈한 일본 기타큐슈를 추석 연휴기간 중 찾아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추석인 지난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기타큐슈를 방문, 기타하시 켄지 시장 및 스에요시 전 시장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특히 기타큐슈가 자동차산업을 선택한 이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완성차 업체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기타하시 시장과 면담에서 “양 도시에 특화된 자동차산업을 핵심으로, 관광·문화·환경 등 시장 전반에 걸친 교류

를 확대하고 우호협력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타하시 시장은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시장은 이어 스에요시 고우이치 전 기타큐슈 시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기타큐슈 모델’ 공유를 위해 광주 조성을 제안했다. 스에요시 전 시장은 1987년부터 2007년까지 기타큐슈 시장을 지내며 자동차 산업 육성을 실현해 나간 장본인이다. 스에요시 전 시장은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의 성공을 위해 광주시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시안으로 파격적인 토지 제공과 훈련된 인력 공급, 중앙 정부와 정보 교류 확대 등을 꼽았다.

또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특정 부

야만 보지 말고 주변 산업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에요시 전 시장은 “자동차만 가지고는 어려워 ‘국제기술선도도시’를 목표로 도시를 성장시켰다”며 “시장 취임 직후 도시재생·부양 분야에 279개 공약을 하고 시작, 20년간 1055개의 세부 공약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공무원을 설득하는 일이었다”며 “시민·의회·기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스마트팩토리 핵심 공장인 야스가와 전기와 독립법인 설립으로 연간 53만대를 생산하고 있는 낫산자동차 큐슈 공장을 방문해 제품 생산과정, 근로자 급여 수준 및 근무 형태 등 작업환경과 근무 실태를 살펴봤다. 최권일기자 cki@

여수 손죽도, 신안 기점·소악도

2017년 ‘가고 싶은 섬’ 선정

전남도, 5년간 40억 지원

여수 손죽도와 신안 기점·소악도가 2017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대상 섬으로 선정됐다. 이들 섬에는 2017년부터 5년간 40억원의 도비와 시·군비가 투입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6기 브랜드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첫 해인 2015년 여수 낭도 등 6개 섬을 선정함에 이어 해마다 2개 섬을 추가해 2024년까지 모두 24개 섬을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633억원을 들여 24개 섬을 주민은 살고 살고, 방문객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꾸는 사업이다. 도비와 시·군비만이 아니라 지역개발특별회계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정부 공모사업비도 추가로 투입한다.

‘가고 싶은 섬’ 공모에는 5개 시·군에서 6개 섬이 참여했다. 자문위원 1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심

사(25%), 현장답사(55%), 지역균형발전(20%) 등을 통해 여수 손죽도와 신안 기점·소악도가 선정됐다.

현재까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지는 여수 낭도, 고흥 연흥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생일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8개다. 여수시 손죽도는 여수에서 배로 80분 걸리는 섬으로 106가구 184명이 거주하고 있다. 바다 경관이 뛰어나 뿐 아니라, 집마다 자발적으로 가꾼 꽃밭과 골목, 오래된 돌담이 매력적이다.

신안군 기점·소악도는 65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보전 가치가 뛰어난 갯벌과 염전,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섯 개의 노두길이 매력적인 곳이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17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섬은 섬 본연의 매력을 한껏 살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섬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농성동·도산동 ‘공동체 주택건설사업’ 추진

203억 들여 110가구 조성

광주시는 서구 농성동과 광산구 도산동 일원 2곳이 ‘광주형 공동체 주택건설사업’ 대상지로 공모에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다. ‘광주형 공동체 주택건설사업’은 민선 6기 공약과제로 광주시가 중점 추진중인 사업이다.

총사업비 203억원 중 광주시 50억원, 자치구 13억원을 부담하고 국가와 LH가 14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광주시는 광주형 공동체 주택건설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0월 국비 30억원 가량을 확보한 데 이어 사업을 확대하려고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사업 계획에 따라 농성동 60가구, 도산동 50가구 규모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복합 주거타운 형태의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앞으로 시행사인 LH와 협약을 하고 사업추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형 공동체 주택건설사업은 5개 자치구에 1개 마을씩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남구 월산동 달피마을 일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

고흥만에 대규모 숙박레저단지 들어선다

썬밸리그룹 600억 투자 10월 착공

고흥만 일대에 대규모 숙박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오는 10월 착공한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체류형 관광활성화 실현을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의 하나로 추진 중인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오는 10월 고흥만 사업부지에서 시작한다. 지난 6월 썬밸리그룹 및 전남도와 투자 협약한 지 4개월만에 실시 투자에 들어간다.

투자협약 한 썬밸리그룹은 2017년까지 도덕면 용동리 일원 3만2628㎡ 부지

에 600억원을 투자한다. 지상 10층 규모 12동 등의 숙박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이 들어설 고흥만 일대는 항공센터, 인공습지, 담수호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지구로 선정돼 인근 고흥만 방조제 일대에 꽃구름길 보행로 등의 체류관광 인프라 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고흥군은 대형 숙박시설이 확충되면 고흥만 관광지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주각종기자 gju@kwangju.co.kr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성황리 분양중

SH BUILDING

남구 빙고골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심면이 확보된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투자가치**

고소득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증가 **미래가치**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합리적 분양가 **고객가치**

문의 062)676-4006 010-5681-4015

빛가람로 전면부에 위치

비전타워 7~8층

파격 분양 및 임대

- 나주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메인도로변이라 광고효과 최고!
- 지상 11층, 지하 3층까지의 넉넉한 주차공간, 각종 병·의원 및 업무시설 입점
- 입점 내과 성업중이며, 피부과 치과등 11월 오픈확정!
- 병원용 침상이 이동 가능한 엘리베이터 완비

- 7층 전용면적 453평 / 8층 전용면적 453평 (전체 면적도 가능 / 1칸씩 분양 및 임대도 가능)

권장업종

- 넓은 객실을 요하는 한방병원
- 아동 전문병원
- 업무용 사무실

분양가격 및 계약기간, 임차가격은 협의가능하며 매수인과 임차인 의견 적극수렴 합니다.

비전공인중개사 박주연 010-4141-5300 / 061)335-0002